

자동차산업

2021년 4분기 동향

-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 1. 자동차 판매량
 -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 3. 주요시장 동향
-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 1. 국내 생산 및 판매 현황
 - 2. 수출 현황
 - 3. 국내 완성차업체 동향
- IV. 시사점 및 전망

작성

책임연구원 김호건 (02-6252-3610)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약 >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2021년 4분기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108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22.3% 증가하며 반도체 공급난은 완화 기조

- 차량용 반도체는 병목현상 등으로 여전히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
 - * 분기별 생산량(만대): ('20 4Q) 2,368 → ('21 1Q) 2,100 → ('21 2Q) 1,969 → ('21 3Q) 1,724 → ('21 4Q) 2,108
- 그러나 동남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기대비 22.3% 증가
 - 토요타는 부품 부족으로 10월과 11월 일부 일본 자동차 생산공장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12월에는 모든 라인을 운영하며 '21년 5월 이후 7개월만에 일본에 모든 토요타 공장이 정상 운영됨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2021년 전세계 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2,001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전기 대비 11.4% 증가

- 전기대비로는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판매량이 11.4% 증가하여 2,000만대 수준을 다시 회복
 - * 분기별 판매량(만대): ('20 4Q) 2,333 → ('21 1Q) 2,082 → ('21 2Q) 2,101 → ('21 3Q) 1,796 → ('21 4Q) 2,001
- 4분기 주요 자동차 시장의 판매 비중은 중국(38.2%), 미국(17.2%), EU(12.3%), 일본(4.8%), 인도(4.8%) 순
 -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친환경자동차 성장세에 힘입어 판매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3.1%p 증가하며 전세계 판매량 증가를 주도한 반면 미국과 EU의 비중은 각각 1.3%p, 1.5%p 축소
 -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중국(△6.5%), 미국(△20.2%), EU(△23.6%), 일본(△19.2%), 인도(△12.4%)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9.3% 증가한 344만대로 6분기 연속 최다 판매량 경신

- EU의 fit for 55, 미국의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50% 목표 등 친환경 정책 강화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9%p 확대된 17.2%
-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89.9%, 20.3%, 57.7% 증가한 167만대, 81만대, 55만대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21년 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한 89만대이며 판매량은 14.6% 감소한 42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44% 증가한 8만대

- (생산) 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한 89만대
- (내수) '21년 4분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42만대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8만대로 4분기 자동차 판매의 19% 차지

2021년 4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친환경차 비중이 상승하며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한 122억 달러

- '21년 4분기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52만대이나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 확대 및 평균 수출단가 상승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에도 수출액 증가
 - * 평균 수출단가 (달러): ('20 4Q) 18,215 → ('21 2Q) 20,298 → ('21 3Q) 20,742 → ('21 4Q) 21,138
- 친환경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64.1% 증가한 128,556대이며 수출액은 73.0% 증가한 36.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 친환경자동차 수출 비중(%): ('20 4Q) 18.3 → ('21 1Q) 20.3 → ('21 2Q) 23.1 → ('21 3Q) 26.7 → ('21 4Q) 30.3

IV. 시사점 및 전망

4분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완성차 업체의 생산차질은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

- 자연재해, 동남아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공장 셧다운 등이 해소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병목현상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공급 부족은 '2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자동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어 반도체 공급 문제 해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난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
-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네온가스, 팔라듐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비중이 높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공급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로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됨

- '21년 러시아는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나라로 전체 수출액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
- 세계적인 물류난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부품 수급차질 및 철강·배터리 등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자동차 업체 부담 가중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2021년 4분기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108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22.3% 증가하며 반도체 공급난은 완화 기조

- 차량용 반도체는 병목현상 등으로 여전히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
- 반도체 공급난 발생 전인 '20년 4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2,368만대
- * 분기별 생산량(만대): ('20 4Q) 2,368 → ('21 1Q) 2,100 → ('21 2Q) 1,969 → ('21 3Q) 1,724 → ('21 4Q) 2,108
- 그러나 동남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기대비 22.3% 증가
- 전세계 자동차 생산의 67.8%를 차지하는 주요 10개 완성차 업체 모두 전기대비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
- * 전기대비 생산량 증가율: 토요타그룹(20%), 폭스바겐그룹(16.2%), GM그룹(46.6%), 현대차그룹(11.7%), 스텔란티스(11.6%)
- '21년 4분기 토요타그룹, GM그룹, 스즈키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19년도 4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
- 토요타는 부품 부족으로 10월과 11월 일부 일본 자동차 생산공장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12월에는 '21년 5월 이후 7개월만에 일본에 모든 토요타 공장이 정상 운영됨
- 4분기 자동차 생산 주요 지역은 중국(37.1%), EU(12.0%), 미국(10.9%), 일본(9.3%), 인도(5.2%) 순으로 이들 5개 지역이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74.6%를 차지
-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 및 기저효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럽지역의 반도체 공급난 피해가 커 EU의 전세계 자동차 생산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2.4%p 축소
- *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 중국(△5.1%), EU(△26.0%)¹⁾, 미국(△10.8%), 일본(△15.2%), 인도(△10.2%)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및 4분기 주요업체 생산량



그룹	생산량 (만대)	전년동기비	비중
토요타 그룹	244.3	△6.8%	11.6%
폭스바겐 그룹	199.7	△23.6%	9.5%
GM 그룹	175.7	△14.4%	8.3%
현대차 그룹	164.4	△9.4%	7.8%
스텔란티스	155.9	△17.8%	7.4%
르노-닛산-알라이언스	150.9	△20.2%	7.2%
혼다	105.8	△19.8%	5.0%
포드 그룹	96.5	△8.9%	4.6%
스즈키	71.2	△3.1%	3.4%
BMW 그룹	64.2	△7.6%	3.0%

자료: MarkLines

1) EU의 전년동기와 비교값은 EU를 탈퇴한 영국을 제외한 통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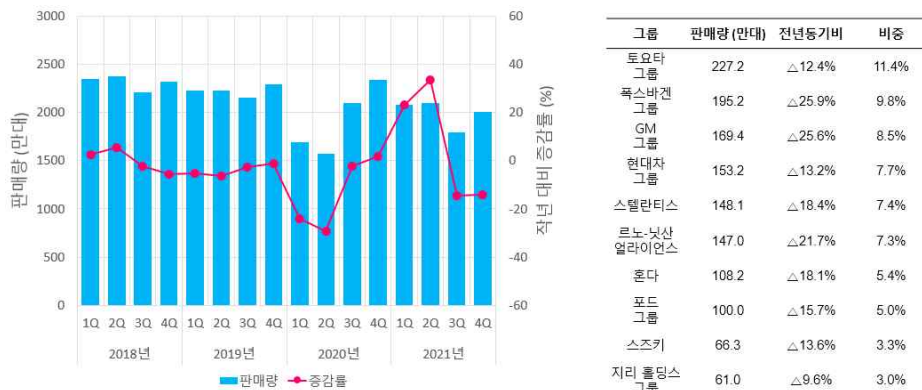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 자동차 판매량

2021년 전세계 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2,001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전기 대비 11.4% 증가

- '21년 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22년 1월 미국 신차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2.2% 상승하였으며, 중고차 소비자물가지수는 40.5% 상승하며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끔
- 그러나, 전기대비로는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판매량이 11.4% 증가하여 2,000만대 수준을 다시 회복
- 21년 4분기 판매량은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19년 4분기 판매량의 87% 수준
- * 분기별 판매량(만대): ('20 4Q) 2,333 → ('21 1Q) 2,082 → ('21 2Q) 2,101 → ('21 3Q) 1,796 → ('21 4Q) 2,001
- 대다수의 주요 완성차 업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테슬라의 판매량은 127.7% 증가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도 4분기 테슬라 판매량은 37.6만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292%, 175% 증가하며 최대 판매량 기록
- GM그룹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6.8% 감소하였으나 중국에서 소형 전기차 홍콩미니의 판매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판매량 27.1% 증가
- 4분기 주요 자동차 시장의 판매 비중은 중국(38.2%), 미국(17.2%), EU(12.3%), 일본(4.8%), 인도(4.8%) 순
-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친환경자동차 성장세에 힘입어 판매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3.1%p 증가하며 전세계 판매량 증가를 주도한 반면 미국과 EU의 비중은 각각 1.3%p, 1.5%p 축소
-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중국(△6.5%), 미국(△20.2%), EU(△23.6%), 일본(△19.2%), 인도(△12.4%)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추이 및 4분기 주요 업체별 판매량



자료: MarkLines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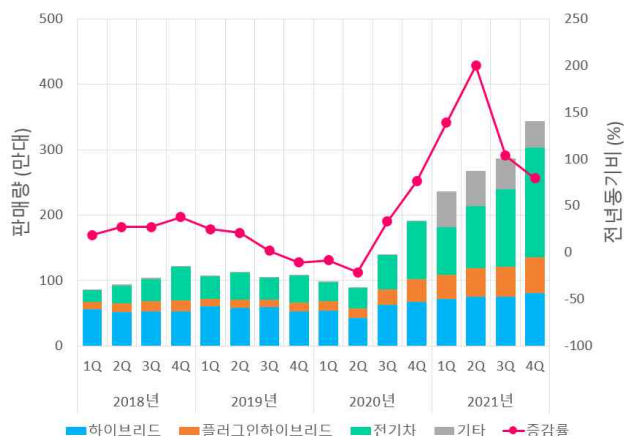
(판매량)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9.3% 증가한 344만대로 6분기 연속 최다 판매량 경신

- EU의 fit for 55, 미국의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50% 목표 등 친환경 정책 강화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9%p 확대된 17.2%
-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89.9%, 20.3%, 57.7% 증가한 167만대, 81만대, 55만대
- 순수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 중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4.6%p 증가한 8.4%
- * 4분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 비율: 순수전기차(48.7%), 하이브리드(23.5%),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
- 4분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42.8%), EU(24.7%), 미국(11.9%), 일본(10.1%), 영국(5.1%) 순으로 주요 5개 시장이 94.7%를 차지
-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외한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을 고려하면 중국의 비중은 62.6%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형성
- * 순수전기차+수소전기차 판매 비중: 중국(62.6%), EU(17.7%), 미국(9.9%), 영국(4.2%), 노르웨이(2.0%)

(업체별)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 발표, GM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 등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진행 중

- 토요타는 4분기 가장 많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을 보였으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8.4%p 줄어든 15.3% 차지
- '21년 12월 토요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대 판매를 목표로 전기차 계획 발표
- 순수전기차만 고려 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22.5%로 확대
- * 전기차 판매비중: 테슬라(22.5%), GM그룹(9.6%), 폭스바겐그룹(9.1%), BYD(8.2%), 르노-닛산 얼라이언스(6.0%)

전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추이 및 4분기 주요 업체별 판매량



그룹	판매량 (만대)	전년동기비	비중
토요타 그룹	52.5	15.7%	15.3%
테슬라	37.6	127.7%	10.9%
BYD	26.4	251.0%	7.7%
폭스바겐 그룹	25.4	44.0%	7.4%
현대차 그룹	23.3	94.4%	6.8%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22.1	83.9%	6.4%
GM 그룹	16.4	32.8%	4.8%
스텔란티스	13.8	164.6%	4.0%
혼다	13.3	38.6%	3.9%
지리 홀딩스 그룹	12.9	106.5%	3.7%

자료: MarkLines



3. 주요시장 동향

(중국) 2021년 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한 764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130.1% 증가한 147만대

- 중국은 '21년 12월 '2022년 신에너지 차량 재정 보조금 확대 적용 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22년부터 30% 줄이고 '23년부터 지급 중단 계획을 발표
- 중국이 자국의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자동차 산업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
- '22년부터 승용차 생산공장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2021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부진한 현대·기아는 중국 내 지분을 확보하고 독자경영에 나서며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음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1.4%p 증가하여 4분기 자동차 판매의 19.3% 차지
- 종류별 판매 비중은 전기차 71.3%(105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1%(24만대), 하이브리드 12.4%(18만대)
- 테슬라의 중국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은 12.1%로 전년동기 대비 3.1%p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로 외국 완성차 업체의 중국진출이 활성화 될 전망
- (국내기업) 4분기 현대차그룹의 중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15만대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
-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판매량 회복을 목표로 하고있음

(미국) 2021년 4분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0.2% 감소한 344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51.5% 증가한 41만대

- '21년 9월 하원의원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원안 그대로 통과 시 노동조합이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혜택을 볼 예정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독일 및 유럽 제조업체 차별로 보조금 정책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차별적 세제혜택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하원에 전달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5.6%p 증가하여 3분기 자동차 판매의 11.9% 차지
- 종류별 판매 비중은 하이브리드 46.8%(19만대), 전기차 40.5%(17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2.6%(5만대), 수소전기차 0.1%(598대)
-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90.2% 늘어난 반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9.6% 증가에 그쳐 곧 전기차 판매량이 역전 할 것으로 예상
- (국내기업)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판매량은 31.4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8.2% 감소하였으나 제네시스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증가
-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200% 증가한 1.5만대이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152% 증가한 3만대로 계속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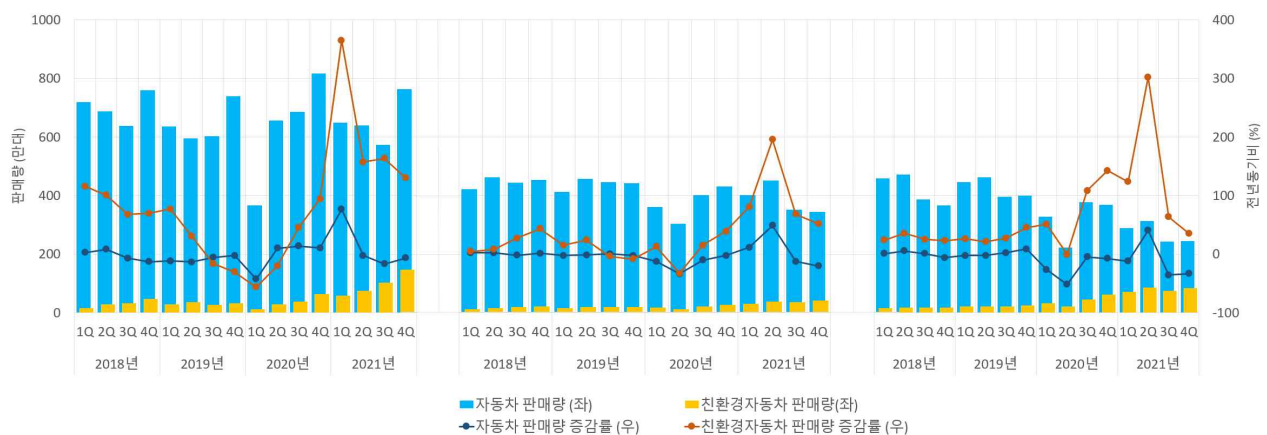
(EU) 2021년 4분기 EU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3.6% 감소한 245만대(영국 통계 제외), 친환경자동차 판매량²⁾은 85만대

- 유럽내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4분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등 완성차 업체의 공장 생산중단 지속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유럽연합 내 반도체 생산량 늘려 반도체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계획 수립 요구
- 12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독일 및 유럽내 반도체 생산 증가를 위한 32개의 기업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100억 유로 이상 투자를 발표
- (친환경자동차) 4분기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34.6% 차지
- 종류별 판매 비중은 전기차 33.3%(30만대), 마일드하이브리드³⁾ 25.2%(21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4.7%(21만대), 하이브리드 15.0%(13만대), 수소전기차 0.04%(309대)
-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1.5%, 7.9% 감소
- (국내기업) 4분기 현대차그룹의 판매량은 친환경자동차 판매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
- 현대차그룹의 4분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한 20만대이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128.4% 증가한 10만대로 친환경자동차가 판매량 증가 주도

(기타) 각국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증액을 발표

- 영국은 보조금 총액을 늘렸으나 보다 저렴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이 보조금 확대를 계획 중이거나 발표하여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

주요 자동차 시장 판매량 추이



주: 영국의 EU탈퇴로 '21년 1월 이후 통계에서 제외

자료: MarkLines

2) 일부 유럽국가 통계에 마일드하이브리드(MHV)가 추가되면서 전년동기와 직접적 비교는 어려움
3) 마일드하이브리드: 작은 배터리(48V 이하)를 탑재한 자동차로 엔진의 추가동력 전달을 통해 연비 향상하였으며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모터만으로 주행은 불가능하나 설계가 쉬운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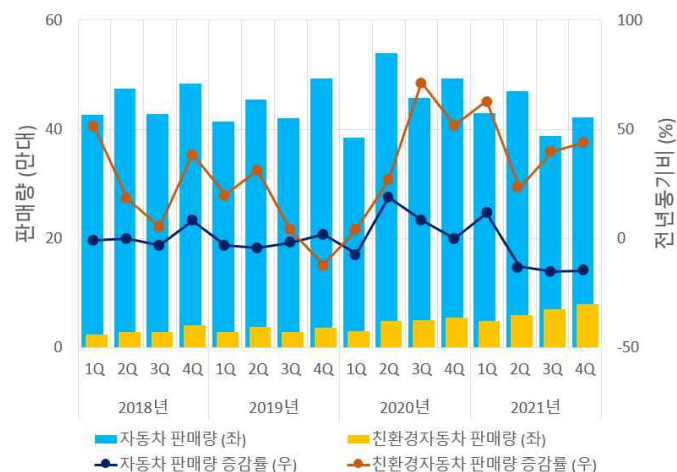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 국내 생산 및 판매 현황⁴⁾

2021년 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한 89만대이며 판매량은 14.6% 감소한 42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44% 증가한 8만대

- (생산) 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한 89만대
-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4.4%, 1.5% 감소
- 특히 한국지엠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감산 및 공장 가동중단으로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69.8% 감소하였으나 르노삼성도 XM3 판매호조로 그룹차원에서 부품을 우선 공급받아 생산량 157.9% 증가
- * 기업별 생산량(전년동기비): 현대차 44만대(△4.4%), 기아 35만대(△1.5%), 르노삼성 4.3만대(157.9%), 한국지엠 2.8만대(△69.8%), 쌍용 2.2만대(△31.0%)
- (내수) '21년 4분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42만대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8만대로 4분기 자동차 판매의 19% 차지
-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8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32.7% 증가하며 비중 확대를 이끔
- *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비율: 하이브리드 59.1%(4.7만대), 전기차 33.7%(2.7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5%(0.4만대), 수소전기차 2.7%(0.2만대)

한국 자동차 판매량 추이



자료: MarkLines

4)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세기 통계치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출처(MarkLines)를 사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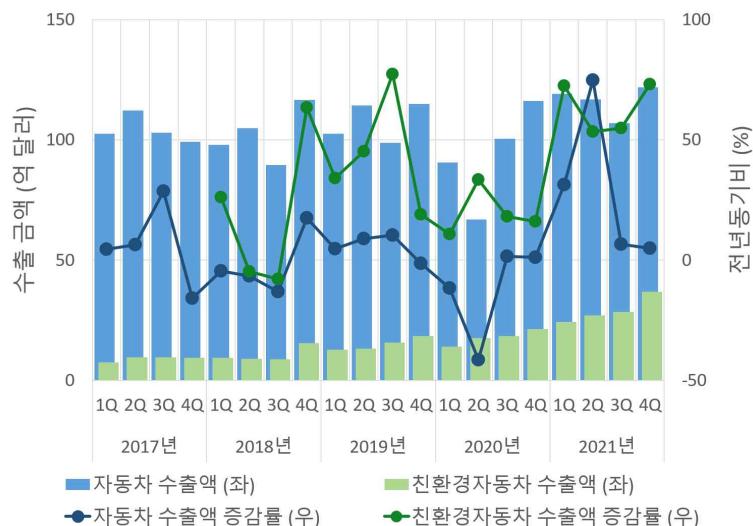


2. 수출 현황

2021년 4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친환경차 비중이 상승하며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한 122억 달러

- (수출) '21년 4분기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52만대이나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 확대 및 평균 수출단가 상승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에도 수출액 증가
 - * 평균 수출단가 (달러): ('20 4Q) 18,215 → ('21 2Q) 20,298 → ('21 3Q) 20,742 → ('21 4Q) 21,138
- '15년 2분기 자동차 수출액 122억 달러 달성 이후 6년여 만에 분기별 수출액 120억 달러 돌파
- (지역) 북미지역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유럽지역 수출액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확대로 23%가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증가에 기여
 - 특히 유럽지역 수출액의 44%를 차지하는 러시아(20.9%)·영국(13.4%)·프랑스(10.0%)에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3%, 31.3%, 39.1% 늘어나며 유럽 수출액 증가 주도
 - * 대륙별 수출액 비중: 북미(41.5%), 유럽(29.6%), 중동(10.9%), 아시아(6.0%), 오세아니아(6.0%), 중남미(4.7%), 아프리카(1.3%)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64.1% 증가한 128,556대이며 수출액은 73.0% 증가한 36.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4분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의 30.3%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
 - * 친환경자동차 수출 비중: ('20 4Q) 18.3% → ('21 1Q) 20.3% → ('21 2Q) 23.1% → ('21 3Q) 26.7% → ('21 4Q) 30.3%

한국 자동차 수출 동향



주: 친환경자동차 통계는 2017 신설되어 전년도와 비교 없음
자료: KITA



3. 국내 완성차업체 동향

(현대차 그룹) 4분기까지 지속된 반도체 공급난으로 전세계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은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각각 6.1%, 1.6% 증가

* 원/달러환율: ('20 4Q) 1,117.64 → ('21 1Q) 1,114.05 → ('21 2Q) 1,121.23 → ('21 3Q) 1,157.35 → ('21 4Q) 1,183.17

- (현대) 4분기 현대차는 전년동기 대비 15.7% 감소한 96만 639대를 판매하였으며 매출액은 6.1% 늘어난 31조 265억원, 영업이익은 21.9% 증가한 1조 5,297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3% 기록
- 판매량 감소에도 친환경자동차 및 제네시스 판매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규 전기차 출시 예정으로 성장 기조 유지 기대
- 현대차그룹은 인천공항공사, 현대건설, KT, 대한항공과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 통신 등 미래사업 확장 노력
- (기아) 4분기 기아는 전년동기 대비 12.8% 감소한 64만 7,949대를 판매하였으며 매출액은 1.6% 늘어난 17조 1,884억원이며 영업이익은 8.3% 증가한 1조 3,27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7.6% 기록
- 환율 영향 및 고부가 차량 판매 확대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 등 판매관리비가 증가하며 영업이익 축소
- 기아는 4분기에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휴맥스 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노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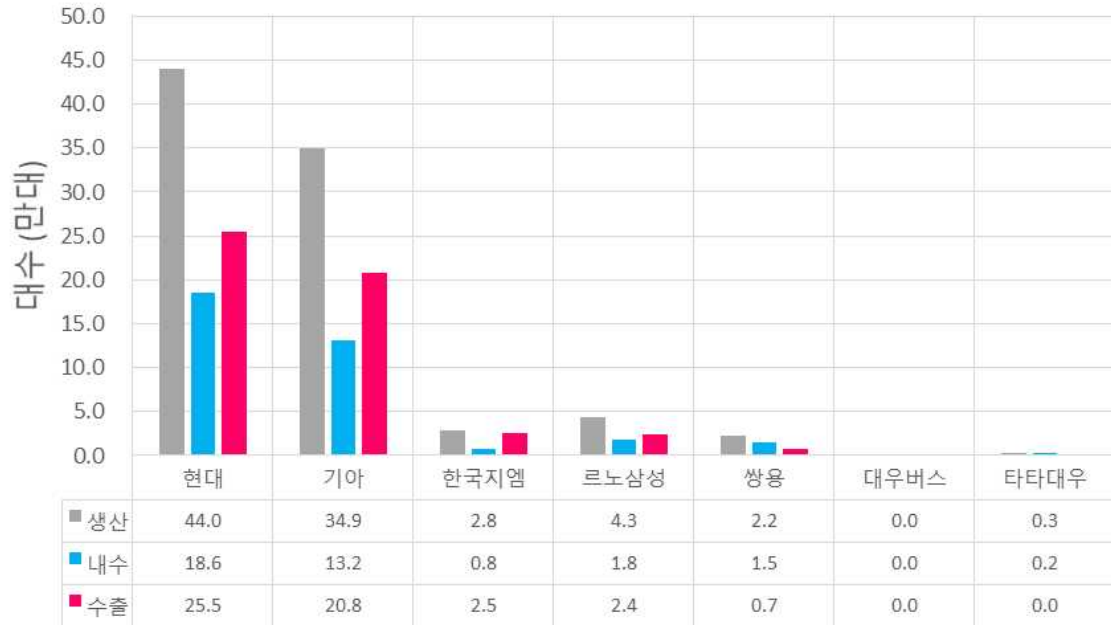
(기타) 4분기 한국지엠과 쌍용차는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생산차질로 내수·수출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르노삼성도 XM3 판매호조로 수출 증가

- (한국지엠) 생산량 감소에 따라 내수 및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6.7%, 67.3% 감소
- 창원공장 신규 설비 공사로 인한 가동중단 및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 등 생산량 감소
- 4분기 진행된 창원공장 현대화 공사로 '23년부터 차세대 크로스오버 차량⁵⁾ 생산 계획
- (르노삼성) XM3의 판매호조로 수출량은 956.7% 늘어났으나 내수판매는 18.2% 감소
- '20년 12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XM3 판매호조로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쌍용) 4분기 쌍용자동차의 판매량은 내수·수출을 합쳐 총 2만 2,252대로 전년동기대비 31.8% 축소되었으며 매출은 26.7% 감소한 6,513억, 영업손실은 58.5% 줄어든 601억원 기록
- 4분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9.3% 감소한 1만 5,366대, 수출은 5.5% 줄어든 6,886대 기록
-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량 및 매출 감소에도 무급휴가 등의 자구노력으로 영업손실 개선
- '22년 1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2년 3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계약 해제 통보

5) 크로스오버 차량: 세단의 주행감과 SUV의 공간 활용 장점을 합친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5, 르노삼성 XM3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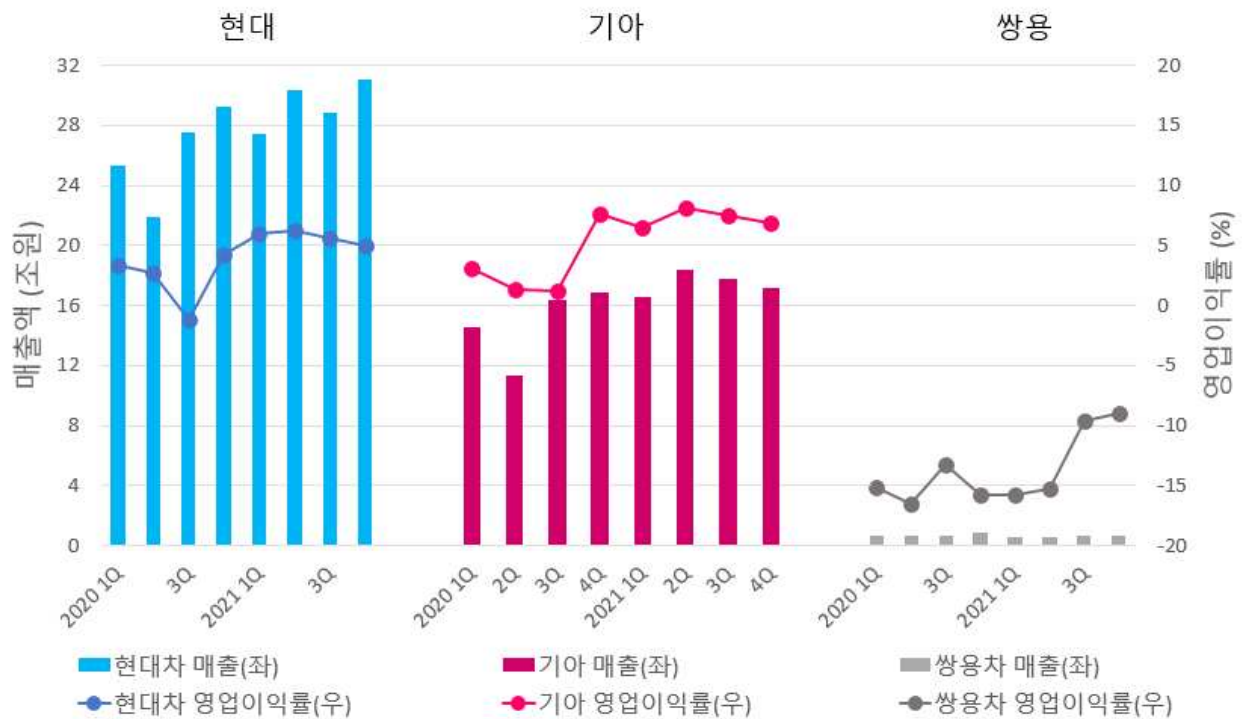


'21년 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판매량



자료: MarkLines, KAMA

국내 완성차 업체 매출과 영업이익률



자료: 전자공시, 각 회사



IV. 시사점 및 전망

4분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완성차 업체의 생산차질은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

- 자연재해, 동남아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공장 셧다운 등이 해소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병목현상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공급 부족은 '22년에도 지속될 전망
- '22년 1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차질 지속 중
- 자동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어 반도체 공급 문제 해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난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
-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네온가스, 팔라듐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비중이 높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공급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
- * 우크라이나 전세계 네온 생산량 비중: 70%, 러시아 전세계 팔라듐 생산량 비중: 40%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년 네온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수입 비중은 28%이며 그 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크립톤(48%)·제논(49%) 등의 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 밝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로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됨

- '21년 러시아는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나라로 전체 수출액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
- '21년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7%를 러시아가 차지
- * 러시아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액(억 달러): ('17) 24 → ('18) 32 → ('19) 34 → ('20) 26 → ('21) 42
- 연간 약 20만대 생산능력이 있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재가동 시기는 불투명
-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도시 봉쇄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음
- 봉쇄조치에 따라 중국 토요타, 폭스바겐의 창춘 공장 가동중단
- 현대차는 중국 봉쇄에 따라 와이어 하네스 공급 차질로 공장 가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세계적인 물류난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부품 수급차질 및 철강·배터리 등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자동차 업체 부담 가중
-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업체는 우크라이나의 와이어 하네스 공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음
- '21년 하반기 열연·냉연강판 가격(미국 중서부 기준)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84%, 161% 상승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철용 원료탄 등의 가격이 올라 철강제품 가격은 계속 인상될 전망
- 철강업체는 완성차 업체에 '22년 상반기 철강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원가 부담 가중
- * 현대차 승용차 평균가격(만원): ('19) 3,774 → ('20) 4,182 → ('21) 4,759



- 니켈,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으로 전기차가 정책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국내 배터리 기업이 주로 만들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은 전쟁 등의 요인으로 '22년 3월 중 전년평균 대비 133% 급등하며 한때 거래가 정지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배터리 업체는 장기계약을 맺어 단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 주요 원자재 전년평균 대비 가격 변화율: 니켈(133%), 코발트(59%), 탄산리튬(316%), 산화네오디뮴(85%) 알루미늄(33%), 마그네슘(57%)
- 부품수급 차질 및 가격인상 요인으로 자동차 생산량·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완성차 업체별 대응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